

- 주요 뉴스: 미국, 이란 핵시설 공격. 이란의 보복 예고 속에서 유가 상승 가능성 제기
 - 미국 5월 PCE 물가, 전월비 소폭 상승 예상. 연준의 금리경로 전망은 유지될 가능성
 - 연준 보고서, 관세 영향의 평가는 시기상조. 트럼프는 연준 의장에 금리인하 압박
 - EU와 중국, 주요 무역 현안 논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관계 발전 합의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중동 갈등 심화 가능성, 6월 FOMC 등이 영향
 - 주가 하락[-0.2%], 달러화 강세[+0.5%], 금리 하락[-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트럼프 정부의 이스라엘이란 분쟁 개입 가능성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 심화 등으로 1.5%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2%, 1.4%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부진한 5월 소매판매 등이 원인
독일은 중동 전쟁에 따른 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2bp 하락
- ※ 원/달러 환율(주간) 0.8% 상승, 한국 CDS 약보합

		6/20일	6/13일	전주말대비			6/20일	6/13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5,967.8	5,977.0	-0.15%	국채 금리 10y	미국	4.38%	4.40%	-2bp
	유럽	536.53	544.94	-1.54%		독일	2.52%	2.54%	-2bp
	중국	3,359.9	3,377.0	-0.51%		영국	4.54%	4.55%	-1bp
	일본	38,403	37,834	+1.50%	CDS 5y	한국	28bp	28bp	-0bp
	한국	3,021.8	2,894.6	+4.40%		중국	54bp	47bp	+7bp
	달러지수	98.71	98.18	+0.53%	위험 지표	EMBI+	378	371	+7bp
환율	유로화	1.1523	1.1549	-0.23%		VIX	20.62	20.82	-0.96%
	엔화	146.09	144.07	-1.38%		WTI유	74.93	72.98	+2.67%
	위안화	7.1815	7.1832	+0.02%	원자재	구리	483.4	481.5	+0.39%
	원화	1,374.0	1,363.5	-0.76%		금	3,368.4	3,432.3	-1.8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이란 핵시설 공격. 이란의 보복 예고 속에서 유가 상승 가능성 제기

-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SNS를 통해 이란 핵시설 3곳(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주요 우라늄 농축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발표. 동시에 평화가 실현되지 않으면 다른 표적을 신속하게 공격할 것이며, 이란의 모든 보복은 보다 큰 무력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
- 밴스 부통령은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닌,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 또한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상당히 지연시켰음을 확신하지만, 완전한 파괴 여부는 민감한 정보이기에 언급을 삼갈 것이라고 설명.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에게 자살행위라고 발언
-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란에 원하는 것은 핵무기 포기라고 강조하고, 원할 경우 언제든지 협상이 가능하다고 언급. 정권 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계속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정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 동시에 중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
-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 핵미사일 파괴 목표에 근접했고, 달성 시 추가 행동은 없다고 발표. 6/22일 이스라엘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TA35지수는 상승(+1.53%). 시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핵무기 공격 위험이 크게 감소하고, 전쟁이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는 기대 등이 반영되었다고 평가
- 이란 외교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며, 미국 시민과 군인이 모두 합법적 표적이 되었다면서 보복을 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미사일 공격을 단행. 아울러 이란 의회는 미국의 폭력에 대응하여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 다만, 일부에서는 이란이 맞대응을 자제하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
- 일부에서는 이란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국가가 없어, 이란이 고립되었다고 분석(Bloomberg). 현재 핵시설 주변에서 방사능 오염 징후는 없는 상황
- 시장에서는 브렌트유 가격이 추후 시나리오에 따라 배럴당 60달러(원유 및 가스 인프라가 공격에서 벗어날 경우), 75~80달러(이란의 석유 수출이 관련 인프라 피해로 중단될 경우), 120~130달러(호르무즈 해협 봉쇄 혹은 걸프지역 원유 인프라 피해가 발생할 경우)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JPMorgan, Oxford Economics)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5월 PCE 물가, 전월비 소폭 상승 예상. 연준의 금리경로 전망은 유지될 가능성

- 6/27일 5월 PCE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헤드라인 5월 PCE 물가지수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은 전월비 소폭 높은 수준 및 보합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각각 2.1%→2.3%, 0.1%→0.1%). 근원 PCE 물가지수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성향 나타낼 전망(각각 2.5%→2.6%, 0.1%→0.1%)
- 다만 최근 연준 위원들이 금리인하 시기 관련 다소 상이한 의견을 피력했으나 대체로 관세의 인플레이션 여파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원하는 상황. 이에 이번 결과가 향후 금리경로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연준 보고서, 관세 영향의 평가는 시기상조. 트럼프는 연준 의장에 금리인하 압박

- 연준은 보고서에서 관세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불투명하며 명확한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 제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파월 의장을 다시 한 번 비난하며, 금리를 내렸다면 연간 1조달러를 절약했을 것이라고 주장. 아울러 의장 해임으로 생각을 바꿔야할 수도 있다고 천연

■ EU와 중국, 주요 무역 현안 논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관계 발전 합의

- 중국의 왕원타오 상무부장과 EU의 세프초비치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수출 통제, 전기차 등 주요 무역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양측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이는 7월 양측의 정상회담을 대비한 주요 의제 정리가 목적인 것으로 추정

■ 유로존 6월 소비자신뢰, 전월비 하락. 중동 갈등 및 무역 불확실성 등이 반영

- 6월 소비자신뢰는 -15.3을 기록, 전월(-15.1) 대비 하락. 시장에서는 무역 불확실성의 지속과 중동 갈등 등이 소비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6/23일 현지시각 기준)

- 연준 월러 및 보우먼 이사, 샌프란시스코 연은 데일리 총재 발언
- 미국 6월 S&P 글로벌 종합 PMI, 유로존 6월 HCOB 종합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이란 공격, 유가 급등 등으로 취약한 세계 경제에 부담 가중될 소지 - 블룸버그

(US Strikes on Iran Come at Fragile Moment for the Global Economy)

- 최근 세계은행,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고, 연준도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자국의 금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1.7→1.4%).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증폭되면서 향후 트럼프 관세 인상 가능성과 맞물려 세계 경제는 심각한 타격에 직면할 소지
-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유가는 130달러,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에 이르고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는 지연될 것으로 전망(Bloomberg). 특히, 이란산 석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가스 가격 상승으로 유럽에 큰 피해 예상

■ 글로벌 석유 거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위기 직면. 일부 제약 요인도 존재 - 블룸버그

(How a Cornered Iran Could Wreak Havoc on Global Oil Trade)

-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1/5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대두. 이란은 선박 억류, 유조선 공격, 해협 완전 봉쇄 등의 선택권 보유.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해협이 완전 봉쇄되면 유가가 70% 가까이 급등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를 초래할 전망(JPMorgan)
- 하지만, 이란은 자국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보복 공격 가능성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 우려 등으로 대응에 신중할 전망.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해협 봉쇄를 위협했지만 실제 실행하지는 않았고 군사적 역량에도 의문. 또한 전 세계 소비국들이 최소 58억 배럴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다는 점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완충 역할 가능

■ 아시아 중앙은행, 달러화 약세와 트럼프 압박 등으로 통화 개입에 신중 - 블룸버그

(Central Banks in Asia Are Becoming Wary of Currency Interv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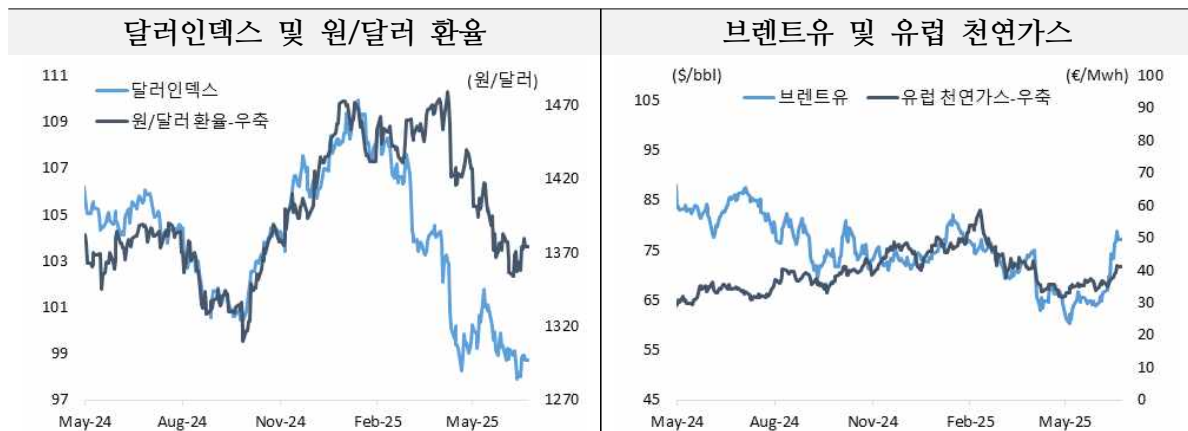
- 인도 및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통화 약세 유도용 파생상품 포지션을 축소했고, 대만은 자국 통화의 강세를 허용. 한국도 국민연금이 5개월간 유지해 온 스왑 거래를 중단. 이는 달러화 약세로 미국의 신흥국 통화 압박이 완화되었기 때문. 또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 등도 주요 원인
- 전문가들은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한국의 원화와 말레이시아의 링깃화가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 다만 중국은 여전히 위안화를 엄격히 통제. 이에 중앙은행의 개입 축소가 아시아 전반의 일관된 현상은 아닌 것으로 평가

- **금융시장의 침묵, 지정학 정책 불확실성 위험에 둔감해진 투자심리 반영 - Financial Times**
(The markets are silent - that is worrying)
 - 미국 주요 주가지수는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와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4월 초 이후 20% 이상 반등하여, 상호관세 발표 직후의 낙폭을 대부분 회복. 또한 재정 전망이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장기금리는 안정세를 보이는 등 시장은 위험 요인에 침묵.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
 - 첫째, 트럼프의 후퇴 행보(TACO)에 대한 학습효과. 둘째, 정책 충격의 현실화까지 시간 소요. 셋째, 반복된 충격에 무뎌진 투자자의 '재난 피로(disaster fatigue)'. 다만 중동 전쟁과 이에 따른 유가 급등 가능성 등의 테일 리스크(tail risk)가 상존. 이를 감안한다면, 최근의 시장 침묵은 오히려 균열의 전조가 될 소지
- **글로벌 투자자, 지정학적 충격 속 동요하지만 실물경제 여파를 주시 - Financial Times**
(Investors are shaken, but not yet stirred)
- **미국 트럼프의 이민자 단속, 관세보다 경제에 더 심각한 타격 미칠 소지 - Financial Times**
(US immigration crackdown will leave deeper scars than tariffs)
-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의 은행개혁안, 채권시장 안정에 긍정적 - 블룸버그**
(Bessent's top bank reform is good for market)
- **이스라엘의 주가 상승 및 통화 강세, 과거의 경험과 對이란 전쟁 자신감을 반영 - WSJ**
(What Israel's Soaring Markets Are Saying About the Iran War)
- **유럽의 재건, 트럼프 정책을 강력한 촉매제로 활용할 필요 - Financial Times**
(Trump has handed Europe a chance to shape its own futur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